사 설

부적 사고파는 사회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사주관상을 봐주거나 부적을 파는 곳이 유난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불안의 해소를 위해 부적을 소지하거나 점을 보는 것은 불안에 대한 근복적인 치유책이 될 수가 없다. 부적을 선호하거나 점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요행심을 자극하거나 맹목성을 조장할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매년 이맘때면 사찰 주변에서조차 들삼재니 날삼재니 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부추기기도 하고 부적을 사고 파는 사이비적 관행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함부의 〈세기경〉에 삼재의 이야기가 있으나 그것은 흔히 지금 사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삼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혹자는 사찰에서 부적을 사고 파는 사이비적 행위마저 중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방편이라 강변할지도 모르나 그것은 올바른 방편일 수 없다.

방편에는 바른 방편이 있고 그른 방편이 있다. 바른 방편은 불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릇된 방편은 불교를 왜곡하고 정법을 훼손하는 오류를 범하고 만다. 사이비적 행위까지 방편이라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에 대한 모독이다.

만약 사이비적 관행마저 중생교화를 위한 방편이라고 강변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어찌하여 도적놈들이 나의 옷을 빌어입고 부처를 팔아 갖가지 업을 지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이라 말하는가"라고 한 〈능엄경〉의 한 구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사찰은 어디까지나 불교의 정법을 지키려 할 때 사찰일 수 있다. 정법을 등지고 사이비적인 관행을 일삼을 때 그곳은 이미 외도의 소굴이요, 마군의 처소에 지나지 않는다.

사자의 탈을 쓴 여우라는 말이 있듯이 출가자의 복장을 하고서 운명을 말하고 요행을 논하는 것은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이요, 정법을 훼손하는 것이다. 불교는 결코 결정론도 아니요, 숙명론도 아니며 우연론은 더더욱 아니다. 부처님은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외도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발씀하셨다. 따라서 불교를 숙명론처럼 왜곡하는 자들이야말로 정법을 훼손하는 사자 몸안의 벌레들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다른 종교의 신도들보다 불교를 믿는 신도들이 미신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못할 사실이다. 그것은 불교신도들이 교리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비불교적 관행을 일삼는 이들이 버젓이 불상을 모셔놓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사찰 주변에서 미신적 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고 미신적 행위를 하는 이들마저 마구잡이로 불상을 모실 수 있도록 방치해 왔기 때문에 타종교인들로부터 '불교는 미신이다'라는 비판을 종종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교교단은 아무나 불상을 모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찰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이비적 관행을 척결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불자들을 개개인 모두를 정법으로 무장시켜 더이상 미신적 행위에 빠져들지 않도록 교육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조계종은 올해를 '신도교육의 해'로 정했다. 무엇이 정법이고 무엇이 비법인지부터 명확하게 가르쳐 불자들이 미신적 신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봉선사 '1말사-1부대' 자매결연

법사 법회파견 · 위문활동 등 정기적 지원

경기도 북부지역이 군불교중흥의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밀운)는 각말사마다 1곳 이상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군포교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IMF 난국을 맞아 군불교 후원마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군포교전략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봉선사의 군포교 기본전략은 '1사찰 1군부대 자매결연 맺기'다. 이를 바탕으로 법회 및 인격지도, 위문활동, 법당건립 등 다양한 군포교활동을 펼쳐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軍)을 '부처님 도량'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것.

이를위해 봉선사는 각 말사 군포교활동 지원책으로 능엄학림에 재학중인 학인스님과 포교사, 광동학원 교법사 등을 군포교 지원법사로 파견한다는 복안이다. 봉선사를 비롯 각 말사들은 금년부터 수계식, 부대장 및 간부불자 전출입 환영법회, 군불자와 사찰신도회연합 민속놀이 한마당 등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봉선사가 타 교구에 비해 군포교를 주요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경기북부 일대가 군부대 밀집지역이란 특성과 70여 본말사 스님들이 군포교에 대한 남다른 원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봉선사 삼직스님들은 매주 군인법회에 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여 말사가 군포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지 밀운스님은 "봉선사는 휴전선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를 관장하고 있는 만큼 민족통일을 대비하는 불교중흥의 전진기지"라며 "군포교는 단지 군복무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거사불교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군법당수는 3백5곳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처님오신날, 수계법회 등의 경우에만 사찰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본사가 정기적 지원을 표방한 것은 봉선사가 처음이다. 이같은 봉선사의 1말사 1군부대 자매결연맺기 불사는 타 교구본사들이 군포교에 보다 큰 원력을 세울 수 있는 귀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부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봉선사의 이같은 군포교전략은 군포교활성화는 물론 향후 거사불교의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근 기자〉

◇각 말사마다 '1사찰 1군부대 자매결연맺기'를 추진하고 있는 봉선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군인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 앞서 둘자장병들은 큰법당 탑전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있다.

사찰문서 표준화 추진
조계종실무팀 본사급 파견

조계종 총무원이 종무행정 문서 표준화를 위한 각 교구본사 공부(公簿) 현실화 작업에 착수했다.

총무원은 9일부터 21일까지 마곡사 법주사등 10개 교구본사에 실무팀을 파견, 본사에 보관된 사찰관련 공부의 보관상태등을 점검한다. 총무원은 이번 공부현실화 작업에서 사찰등록 서류, 인사관리대장, 토지목록 대장등 문서를 집중 점검, 총무원과 통일된 문서관리 체계를 이룰 방침이다. 나머지 본사에 대해서는 9월이전에 공부점검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실상사에 귀농학교 세운다"

3월 단기학교 개설 7월부터 실습
조계종 종단차원 사업확대키로

전남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에 귀농자를 위한 귀농학교가 개설된다.

실상사는 조계종 총무원,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연계하여 IMF 체제하에서 늘어나는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생태농작법(유기농법)을 가르치는 귀농학교를 오는 7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를위해 총무원과 실상사는 3월부터 서울에서 단기학교를 운영해 지원자를 모집한다. 실상사 소유 가용농지 1만여평에서 3개월 단위로 운영될 실습교육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생태 농경법의 이론과 실습을 가르치게 된다.

실상사 귀농학교 개설과 관련 8일 총무원 사회부 윤남진 허권계장, 전국귀농운동본부 이병철본부장 유정길부본부장, 선우도량 이정호간사 등 실무자들은 실상사 현지에서 귀농학교 설립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실무자 회의에서는 7월에 귀농학교를 개설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학교 설립에 따른 기본 프로그램을 이달 중에 완료키로 했다. 이와관련 총무원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종단 차원의 사업으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총무원과 실상사는 △교육 운영인력(스님 1명 재가자 1명) 확보 △피교육자 임시 숙소 마련과 황토흙 집짓기 프로그램 운영 △재정 조달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귀농운동 본부는 실상사 귀농학교 설립에 따른 제반 정보와 생태 유기농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자의 알선과 현지 농장의 작목 선택, 농법 제공등도 지원키로 했다.

조계종 '불교의례委' 적극 검토

의식 · 의식문 통일 교통정리 역할 기대

조계종포교원은 각종 의식 및 의식문의 통일된 제정과 시행을 위해 가칭 '불교의례위원회' 구성을 신중히 검토키로 하고 이른 시일안에 구성안을 종무회의나 중앙종회에 제출키로 했다.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9일 〈통일법요집〉 감수회의 후 이같이 밝히고 "불교의례위원회는 포교원이 마련한 '통일법요집 시안'을 검토, 최종 확정하는 것을 비롯 조계종의 각종 의식과 의식문의 현대화 통일화하는 권위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교연구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기구가 원로회의 또는 3원합동의 산하기구로 할 것인지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의 이같은 방침은 각종 의식이 시행자마다 달라 통일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권위있는 기구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실제 지난 95년부터 시작한 〈통일법요집〉 편찬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이 서로 달라 포교원 차원에서 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도 작용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찰들은 저마다 별도의 법요집에 따라 각종 의식과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3년여의 편찬작업을 거쳐 88년 제작, 배포한 〈통일법요집〉은 사찰보다는 주로 신행단체에서 쓰이고 있다.

한편 포교연구실은 2월말까지 '통일법요집 시안'을 발간, 연말까지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후 시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불교의례위원회에 넘겨 최종안을 확정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초 예정했던 〈통일법요집〉 발간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정성운 기자

서울시교육청 '심성교육자료집' 종교편향 '물의'

기독교 기도문등 실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발간한 〈청소년 심성 수련활동 프로그램집〉의 내용중 특정 종교의 기도문이 거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청소년 심성 수련…〉의 내용중 '종교편향'으로 지적되고 있는 곳은 '촛불의식(2)' 놀이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고백(告白) 실례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기독교 기도문인 '은혜의 빛 둘레에서' 등 두 곳.

고우익교법사(동대부중)는 "청소년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본(敎本)으로 사용될 자료집이 특정 종교의 의식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문수장학사는 "자료집이란 일선 교육장에서 선별, 교육되는 것인 만큼 종교 편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간한 이 자료집은 이미 서울시 소재 1천2백여 초·중·고등학교에 배포, 상담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난극복 시국강연회
종교지도자협, 28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월주)는 제79주기 3·1절을 맞아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강연회 및 선언문 발표회'를 28일 오전10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천도교회관에서 갖는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등 7개종교 지도자와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이날 발표회에서는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이 '국난극복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강연한다. 강연에 이어 협의회는 각 종교별 기원문을 낭독하고 국난극복을 위한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큰 힘 되게…"

"자아의 장중함을 일깨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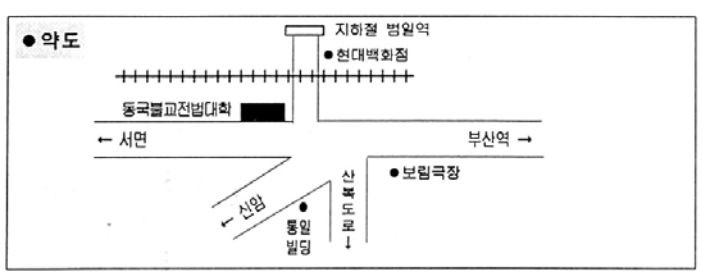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동국불교 전법대학 신입생 대모집

● 포 교 사 과 정 ●

■ 모집인원 : 선착순 100명
■ 수학기간 : 2년 ■ 접수마감 : 2月 27日
■ 입학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승려는 등록금 20%감면)
■ 강의시간 : 주 1~2회 출석수업(통신교재 지급)
■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 과 목	비 고
1학년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참선, 생활불교, 인도·중국·한국·일본 불교사, 불교사상, 반야심경, 천수경, 불교문화, 선사상	◇매분기별 수련법회 ◇매분기별 사찰순례 ◇수계법회 ◇불교의식은 의무수강 (예불부터 재의식까지)
2학년	불교학개론, 비교종교론, 불교복지론, 화엄사상, 법화사상, 불교제반의식, 밀교, 포교방법론, 참선, 경전연구	

■ 특 전 : ① 본대학은 조계종 교육기관으로서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거쳐 조계종 포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② 본대학에 개설중인 스리랑카 국립팔리대학 DIPLOMA과정 진학가능
③ 동국대 대학원 및 본대학 삼장 대학원 진학가능



●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DIPLOMA(학사예비) 과정 ●

-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

■ 모집인원 : 주간 50명, 야간 50명(주 4~5일 출석)
■ 수학기간 : 1년 6개월(ENGLISH LANGUAGE 포함)
■ 입학자격 :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수학능력시험과는 무관)
단, 조계종 승려로서 사교, 대교 과정 수료자는 학력제한 없이 입학가능
(영어회화 가능자는 장학혜택)
■ 입학전형 : 면접 및 서류심사
■ 전형일시 : 원서 및 서류제출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원서교부마감 : 2월 27일 오후 4시 한
■ 교육과목 : ①Buddhist English(불교영어) ②Basic Pali(팔리어 기초)
③Early Buddhism-Basic Doctrines(초기불교-기초교리)
④Buddhist Social Dimensions(불교사회철학)
⑤Geographical Expansion of Theravada Buddhism(소승불교의 지리적 발전)
⑥Early History of Buddhism up to the Third Century B.C(불교사)
■ 특 전 : 본 DIPLOMA과정 수료자는 위 5과목의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합격자는 DIPLOMA 수료증과 학사과정(3년)에 진학하여 학사학위(BA)를 취득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현지 스리랑카 팔리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가능

■ 입학문의 및 접수처: (051)642-6242, 633-5516 FAX:631-6641,
서울사무소: (02)741-0496
■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32-698번지

동 국 불 교 전 법 대 학